

보고서

Report

‘멕시코건축사대회 및 UIA 기후변화포럼’ 참관기

김혁곤 | 건축사지편찬 T/F 위원회 위원

2010년 11월 23일 서울출발

인생은 여행이라는 글귀가 살아 움직이며 나를 쳐다볼 때가 있다. 어찌다 갑자기 여행 가방을 꾸리면서 느끼는 작은 감동이 가슴을 적실 때 그 순간 여행은 인생의 도전이라는 생각이 든다. 스페인어 권에서 공부를 한 대한건축사협회 정회원이라는 이유로 팔자에 없는 멕시코건축사대회 참관을 위해 여행보따리를 꾸리게 되었다. 2011 UIA 총회를 유치하기 위한 마지막 승부수를 걸어야하는 마지막 대륙이 라틴아메리카라는 최영집 전회장의 화두가 머리에 떠올랐다. 콜럼부스가 라틴아메리카를 찾아 떠나듯이 대한민국건축사가 라틴아메리카의 중심국가인 멕시코건축사대회 참관을 기점으로 세계의 중심으로 자리 잡기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함이었다.

최영집 전협회장과 필자는 칸곤의 UIA 기후변화 오픈포럼 직전에 치러지는 멕시코건축사대회 참관을 위해 이상림 한국건축가협회 회장 보다 이틀먼저 11월23일 아침 10시 비행기를 타고 떠났다. 급한 마음으로 여행가방하나 달랑 둘러 메고 비행기를 탔다. 인천에서 아틀란타로 길고 긴 불안한 평화(13시간 15분)를 건드는 하늘 여행이 시작되었다. 몇 년에 한 번씩 길고 긴 여행을 하였건만 멕시코라는 이유로 갑자기 지워버린 스페인 유학시절의 기억이 떠올랐다. 스페인 말이라고는 한 마디도 못하면서 용기 있게 스페인행비행기에 올랐던 무모함으로 최 전회장의 옆 좌석을 차지하고 있는 현재가 아련한 과거처럼 웃을 갈아입고 있었다. 아틀란타 공항에서 4시간을 기다린 후에 멕시코로 향하는 비행기를 타고서야 처음으로 스페인어를 들었다. 10년이란 시간은 그나마 조금 알고 있던 스페인어를 다 잊어버리기에 충분하였지만 어딘가 모르게 친구 같은 따뜻함이 느껴졌다. 최 전회장께서 “스페인어 알아듣겠어” 하며 대뜸 나를 쳐다보았다. 그냥 싱긋 웃었다. 간단한 일상용어지만 생소하기도하고 반갑기도 한 작은 희열이 마치 오랜 고향을 방문하는 기분이었다.

멕시코공항 검색대는 남미의 기질처럼 느긋하지 않았다. 우리의 짐을 흘랑 다 뒤집어놓고서야 겨우 빠져나올 수 있었다. 만만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취기처럼 달아올랐다. 낯선 멕시코공항 대합실에서 기다리던 엔리께가 사정이 생기는 바람에 처음으로 어색한 스페인어로

표를 사고, 택시를 타고 멕시코시티의 중심가에 자리 잡은 힐트호텔에 도착하였을 즈음 해는 이미 긴 꼬리를 드리우며 하루를 마감하고 있었다.

호텔에 짐을 풀고 식사를 하려고 무작정 호텔근처를 탐문하듯이 걸어 다녔다. 역시 해외여행은 필자보다 고수인 최 전회장께서 도시를 편잡하듯 관찰하고 나서야 우리일행은 잘 차려진 중국집에서 처음으로 멕시코식 식사를 하였다. 늦은 저녁을 마치고 서울에 메일을 보내고 가져온 자료를 점검하였다. 그러나 믿었던 유에스비가 말썽이었다. 밤늦게 호텔에서 인터넷을 연결하고 필요한 자료를 서울에서 받아서 프린트하려고 카운터로 내려갔더니 2층 비즈니스센터의 담당직원이 퇴근하고 난 뒤였다. 바쁜 카운터직원을 설득하여 겨우 프린터를 끝냈을 즈음 시간은 이미 12시를 넘겼다. 둥근 지구 탓으로 23일 하루는 멕시코에 도착하여도 여전히 23일 이었다.

멕시코의 24일

아침식사를 마치고 멕시코건축사대회가 열리는 셀라야로 떠나기 위해 체크아웃을 하고 남은 시간을 즐기기 위해 호텔 문을 나왔다. 오후 3시에 셀라야로 배웅하는 자동차가 오기로 약속이 되어있었다. 노련하신 최 전회장께서 멕시코시티 역사지구만 돌아다니는 관광버스를 예약하라고 주문하셨다. 한참을 헤매이다가 값싼 버스에 올랐다. 아침햇살을 즐겁게 마중하기에 적당한 날씨였다. 팔찌처럼 팔목에 전자인식표를 달아주었다. 그리고 느긋하게 멕시코의 오래된 향취에 취해 있었다. 길이 막히기도 하였지만 여기저기 정류장에서 느긋하게 기다리는 시간이 손아귀에 잡힌 모래처럼 빠져나갔다. 오후의 햇살이 제법 뜨겁게 피부를 파고들 때 최 전회장께서 돌아가는 시간을 확인하였다. 느긋한 멕시코친구들은 역시 시간개념이 부족하였다. 급하게 차를 세우고 친절한 택시를 타고 호텔로 줄행랑을 놓듯이 달렸다. 기다리는 시간조차 부족하더라도 점심까지 굶으면서 호텔로비를 진지처럼 지켰다. 약속한 시간이 30분이 지나도록 차가 오지 않았다. 할 수 없이 엔리께에게 전화를 넣었다. 조금만 기다리라고 한다. 멕시코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채근을 하였다. 멕시코인의 느긋함과 멕시코시티의 교통사정을 보면

이해는 하지만 역시 이것도 문화의 차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말썽한 차림의 엔리께를 만나자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졌다. 편안한 여행을 위해 손수 아내의 새 차를 대령하는 예의까지 갖추었다. 4시간의 긴 여행 사이에 맛있는 저녁까지 엔리께가 대접하였다. 출퇴근 시간과 마주치면서 길은 한없이 늘어졌다. 밤길을 달려 겨우 셀라야(Celaya)시티 환영만찬장에 도착하였다. 멕시코시티 북쪽에 위치한 셀라야시티는 고원지대이며 멕시코 독립투쟁의 전초기지였던 역사적인 장소라서 격년마다 멕시코건축사대회를 개최하는 유서 깊은 도시였다. 어둠이 대지를 삼킬 즈음 가사 꼴뚜라(casa cultura;셀라야문화관)에 도착하였다. 성당에서 교도소로, 학교로 옷을 갈아입으며 멕시코 독립 전초 기지역할을 하였던 역사적인 공간에서 환영리셉션이 벌어지고 있었다. 희미한 중정바닥을 수놓은 촛불사이로 걷어가는 기분이 인상적이었다. 수많은 인파를 헤치며 Lizandro 멕시코건축사협회 회장을 만난 최 전회장이 와인 잔을 손에 잡는 순간 여행길의 여독을 잊어버린 것처럼 능숙하게 외교 전략을 펼쳤다. 화려한 연사보다 더 가슴을 울리는 매력은 역시 인품에서 우리나라오는 뜨거운 심장의 교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화려한 조명과 와인 잔도 좋았지만 지친 마음은 자꾸만 호텔(Casa Inn)로 무너져 내렸다.

25일 건축물 탐방(Guanajuato)

25일 조찬을 마치기가 무섭게 해외초청자들을 태운 버스는 유서 깊은 도시인 Guanajuato를 향하여 달렸다. 유네스코 문화유산이자 멕시코의 자부심인 Guanajuato는 스페인 식민 지배시절 은광산 단지로 발전하였다. 2,000m 고산지역에 자리 잡은 도시중심부에는 식민시대 은

을 세척하던 수로가 20세기 중반 지하도로로 변신하였다. 라빠스광장, 유니온정원, 헤수스교회, 구아나후아또대학, 이달고박물관을 가로지르며 이름 모를 거리들을 장식하고 있는 조각돌에서 묻어나는 멕시코의 긴 독립투쟁의 역사현장을 걸으면서 외국 초청 인사들과 친밀한 시간을 즐겼다. 수직으로 깎아지른 듯한 절벽을 오르내리며 식민지배의 흔적을 감상하였다.

저녁 7시 셀라야시청 만찬행사를 위해 서둘러 호텔에 도착하니 이상림 회장이 도착해 있었다. 멕시코공항에서 영어는 한마디로 알아듣지 못하는 택시를 타고 옹케도 셀라야호텔(Casa Inn)에 도착해 있었다. 짐을 풀고 연회복으로 갈아입고 우리일행은 다시 가사 꼴뚜라에 도착하였다. 작은 강당에 도착하니 아리따운 소프라노의 노래가 심장을 전율시키고 있었다. 최 회장은 앞자리 특별석에 자리 잡고 이 회장과 나는 빈 좌석에 안내되었다. 화려한 선율이 끝나기 무섭게 멕시코건축사협회가 주관하는 공식 환영식이 벌어졌다. 멕시코건축사협회 공로자들과 참석한 전임 UIA회장과 더불어 최 회장에게 멕시코명예회원증이 주어지더니 예고도 없이 이상림 회장이 호명되더니 필자까지 명예회원증을 주면서 환영을 해주었다.

곧이어 야외공원에서 달빛을 벗삼아 화려한 와인파티가 열렸다. Vassilis Sgoulas UIA전회장장과 Juhani Katainen 유럽건축사연합회 전회장장과 중남미건축사연합회 회장인 Jorge R Monte를 비롯한 멕시코건축사들과 담소를 나누며 기념촬영을 하며 친구가 되었다. 특별히 우리 일행을 챙겨주는 멕시코 아가씨의 근접경호까지 받을 수 있었다. 최 회장과 우리일행을 배려하는 Lizandro 멕시코회장의 따뜻한 정성을 가슴에 가득안고 Casa Inn호텔에서 숙면을 취했다.



최영집 전회장 명예회원증 수여식



최영집 전회장 프레지덴셜 메달 수여식



최영집 전회장과 수여자들과 함께



만찬장에서



멕시코건축사협회 이취임식



만찬장에서 필자가 베사메무쵸를 부르는 장면

26일 오전 건축물탐방(San Miguel), 오후 멕시코건축사대회 참관

26일 조식을 마치고 우리일행과 초청외국건축사들은 작은 승합차를 타고 셀라야 인근의 작은 도시로 안내되었다. 전날 본 Guanajuato의 유서 깊은 도시규모에 비해 작고 비교적 평탄하였지만 아담하고 잘 정비된 도시의 풍모가 오히려 정답게 다가왔다. 특별히 중남미건축사연합회 회장인 Jorge R Monti와 유럽건축사연합회 전회장인 Juhani와 함께 다녔다. Jorge R Monti와 돈독한 관계를 염두에 둔 최 전회장의 의도가 숨어있었다. Jorge R Monti는 영어가 서툴렀으므로 필자의 서툰 스페인어가 조금씩 실력발휘를 하였다. 따뜻한 배려와 정성은 말보다 더 강한 법이다. 마음씨 좋은 아르헨티나 할아버지 같은 Jorge는 최 전회장과 친구처럼 담소를 나누며 함께 걸었다. Jorge의 안내로 운치 있는 찻집에서 서로 잔을 기울이며 친구가 되었다. 그렇게 우리의 조용한 외교는 조금씩 결실을 맺어가고 있었다.

호텔인근에서 벌어지는 야외파티를 기대하며 주린 배를 움켜쥐고 서둘러 돌아왔지만 점심만찬이 진행되고 있는 Xochipilli공원은 아늑한 호수를 배경삼아 이미 식사가 진행 중이었다. 전국에서 모인 멕시코건축사들과 함께 젊은 가수의 음악에 맞추어 맛있는 멕시코만찬을 즐겼다. 호텔에서 옷을 갈아입고 곧바로 멕시코건축사대회를 참관하였다. 신임 회장을 선출하는 장소에 초대되었다. 세 사람의 후보 중에 가장 매력적인 정견발표를 한 인사가 압도적인 표차로 새로운 회장에 당선되었다. 전국지역 대표가 한사람씩 나와서 투표를 하는 모습이 인상적으로 다가왔다. 우리일행과 가장 친숙한 인사가 회장에 당선되어 내심 기분이 좋았다. 신임회장을 축하하며 함께 기념촬영까지 마쳤다. 지금까지 최 전회장이 다져온 한국과 멕시코건축사협회의 우호적인 분위기가 더욱 성숙하는 기틀이 마련되었다.

서둘러 장소를 호텔인근의 오디오리엄으로 옮겨 성대한 멕시코건축사협회 회장의 취임식을 거행하였다. 셀라야시장과 중남미건축사연합회 회장 및 UIA전임회장이 동석한 자리에서 군악대의 연주에 맞추어 국가적인 의식으로 진행되었다. 솔직히 조금 부러웠다. 공식적인 이취임식이 끝나기가 무섭게 단상의 전임회장과 신임회장의 자리가 바뀌는 인상적인 장면에 전임회장이 아쉬운 듯 멈칫거림에 작은 미소가 피어

올랐다.

호텔에 돌아오기가 무섭게 버스를 타고 만찬장소인 Alamo클럽하우스로 이동하였다. 골프클럽하우스가 로마시대 원형경치장처럼 우아한 만찬장으로 변해있었다. 이취임식을 축하하며 가족을 동반한 멕시코건축사들이 여기저기 동지를 틀었다. 축제를 즐길 줄 아는 그들만의 여유 있는 라틴문화를 느낄 수 있었다. 우리일행은 초청 외국건축사들과 함께 자리를 잡았다. 화려한 드레스를 뽐내는 여인의 향내와 와인과 음악이 조화를 이루는 장소에서 시장을 모시고 공식만찬이 진행되었다. 축하연설이 끝날 즈음에 최영집 전회장에게 멕시코건축사협회에서 프레지덴셜메달을 수여하였다. 기념촬영을 끝내고 돌아서자마자 이상림 회장과 필자에게도 기념선물을 수여하였다. 깜짝 선물에 놀란 필자에게 마이크를 잡은 Lizandro 멕시코전임회장이 노래를 부탁하였다. 술김에 농담조로 전한 말이었지만 최 전회장과 돈독한 Lizandro의 따뜻한 배려가 깔려있었다. 일행의 제일 막내인 필자에게 대한민국건축사의 패기와 열정을 스페인어로 전하는 기회가 주어졌다. 잠시 망설였지만 최선을 다해 Besame Mucho를 열창하였다. 기립박수가 쏟아졌지만 나는 알지 못했다. 난생처음 외국에서 그것도 많은 청중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노래를 불러보기는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27일 간판(Cancun)으로 이동

뜨거운 밤을 보내고 일행은 새벽부터 짐을 들고 엔리께의 차를 타고 멕시코공항으로 이동하였다. UIA 기후변화오픈 포럼(COP-16)이 기다리고 있는 간판으로 가기위해서 우리일행은 간판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공항을 나서자 후텁지근한 공기가 열대우림지역임을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고산지역의 건조한 기후에서 열대우림의 휴양도시로 진입하자마자 나는 웃옷을 벗어던지고 모자를 쓰기 시작하였다.

호텔에 여장을 풀고 일행은 호텔인근을 산책하다 멋있는 야회테라스가 갖추어진 중국집에서 조촐한 저녁만찬을 즐겼다. 전쟁터로 떠나기에 앞서 어린 마음을 달래는 심정이었다. 멕시코방문의 메인이벤트인 간판강연을 긴장된 마음으로 기대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내색하지 않았다. 고단한 여독을 술잔의 도움으로 벗어던지고 깊은 잠으로 빠져들었다.

28일 마야건축물 탐방

11월 28일 아침 일찍 마야시티 친환경 건축물탐방(Green Visit to Mayan City)을 위해 유서 깊은 마야유적인 살아 숨쉬는 치첸잇사(Chichen Itza)로 향했다. 휴양도시 칸쿤에서 가장 가까운 마야유적지인 Chichen Itza는 고대 마야인들의 천문학적 지식과 건축기술이 한데 어우러진 마야문명의 야외박물관이다. 칸쿤에서 200km, 메리다에서는 120km 떨어진 탓으로 버스는 한없이 평화로운 밀림 속을 헤치며 끝없이 달렸다. 치첸잇사란 지명은 우물가 잇사족의 집이란 뜻에서 나온 마야어다. 유카탄 최대의 세노페 사그라도(성스러운 우물)를 모처럼 쓰고 치첸잇사가 펼쳐져있다. 6세기 마야족에 의해 번성하였지만 9세기 경 쇠락의 길을 걷던 이곳은 10세기경 톨텍문명을 받아들이며서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게 된다. 이후 마야문명의 중심지로 200년 이상 유카탄의 예술과 종교 경제의 중심지로 영광을 누렸지만 13세기경 빠야판 종족에게 밀리면서 역사에서 사라졌다.

전체적으로 거대한 테마파크를 연상하는 치첸잇사는 150m의 평행한 벽 위에 공을 넣는 원형골대가 인상적인 볼경기장(Juego de Pelato), 적군과 인신공양에 쓰인 해골을 전시한 썸뿔리(Tzompantli), 종교 의식에 사용되었던 재규어의 제단(Plataforma de Los Arguilas Y Los Jaguares)으로 마야문명에서 뱀과 독수리 재규어는 웅망한 전사계급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 외 금성의 제단(Tumba del Chac-Mool), 전사의 신전(Templo de Los Guerreros), 천문대(El Caracol)가 피라미드를 중심으로 펼쳐져있었다. 마야문명의 상징처럼 우뚝 솟아있는 구골간의 피라미드(El Castillo)는 11월 29일부터 12월 10일까지 열리는 제 16차 유엔기후협약 당사국 총회를 겨냥해 그린피스가 '기후를 보전하자(Rescue The Climate)'란 구호가 새겨진 풍선을 띄운 곳이다. 9세기 초에 완성된 바닥둘레 55m, 높이 23m의 피라미드형 신전으로 치첸잇사의 상징이다. 정면에서 박수를 치면 동물 울음처럼 독특하게 반향 되는 소리 때문에 우리일행은 모두다 박수를 쳤다. 건축미뿐만 아니라 피라미드자체가 과학이다. 각각 9개로 되어있는 4면의 계단에 정상의 1개 계단을 더하면 총 1년의 날수인 365일이 되고 마야달력의 52년 순환을 상징하는 52개의 패널이 4면에 새겨져있다. 특히 춘분(3월21일)과 추분(9월21일)이 되면 피라미드의 북쪽 계단에 드리워진 그림자가 마치 구불거리며 내려오는 뱀의 모습처럼 변한다. 이시기에 맞추어 열리는 마야문명의 대규모 제사의식은 오늘날 축제로 재현되었다. 마야문명을 돌아보며 UIA Cox회장을 비롯한 포럼 참여 외국건축가들과 함께 사진 촬영과 식사를 하면서 친밀한 시간을 즐기며 우정을 돈독히 쌓을 수 있었다. 돌아오면서 24km에 달하는 카리브 해의 해변 길을 따라 펼쳐진 칸쿤의 호텔거리(Zona Hotelera)를 서행하며 천천히 호텔로 돌아왔다.

칸쿤포럼의 의미

세계적인 멕시코의 해변휴양도시인 칸쿤에서 UIA 기후변화 오픈

포럼공식 행사의 일환으로 국제건축사연맹(UIA)과 멕시코건축사협회(FCARM)가 공동으로 11월 28일부터 11월30일까지 제2차 기후변화 오픈포럼(COP-16)을 개최하였다. 2009년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제1차 기후변화오픈포럼(COP-15)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이번행사는 친환경 디자인전략을 주제로 UIA Louis Cox회장과 부회장인 Mauricio Rivero Borrell, Patricia Emmett, Albert Dubler, Kazuo Iwamura 등이 진행으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포럼의 연사로는 전임 UIA회장인 Sara Topelson de Grinberg와 Vassilis Sogutas, UIA재생에너지 실무위원장 Nikos Fintikakis, 남아프리카건축사협회 회장인 Fanuel Motsepe를 비롯한 세계적인 전문가를 위시한 UIA인사들이 초청되어 강연장을 뜨겁게 달구었다. 무엇보다도 당시 대한건축사협회 최영집 회장이 역대회장으로서는 처음으로 국제공식포럼에 특별강연자로 초청된 것도 축하할 일이지만 한국어가 아닌 영어로 공식포럼의 강연을 진행한 것은 한국건축사에 새로운 획을 긋는 일이었다.

대한건축사협회의 국제위원이 영어로 강의하는 것은 어제오늘일이 아니지만 협회 회장이 공식적인 국제행사에 초청되어 영어로 강연을 하고 질문을 영어로 답하는 순간은 처음일 것이다. 탄소중립도시모델(Neutral Carbon City Model)이란 주제로 세계건축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국의 수준 높은 건축문화를 소개하게 되어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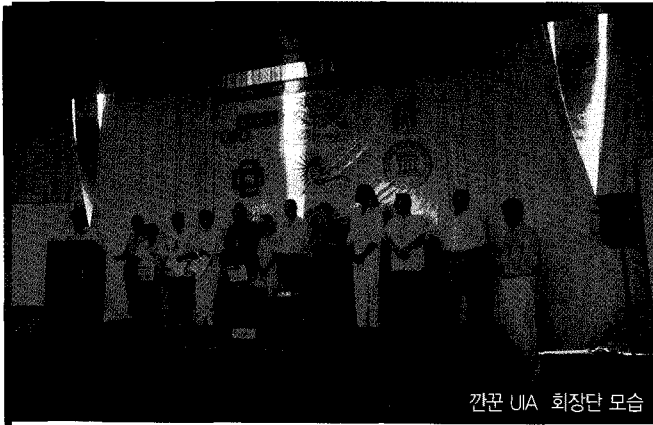
사실 서울을 떠날 때만 하여도 최영집 전화장이 직접 영어로 강연을 할 것이라고 결정하지는 않았다. 최 전화장의 미성을 영어로 전달하기보다는 한국어로 강의하고 스페인으로 통역하기로 내심 생각하였다. 그러나 현장에 도착하고 나서 생각을 바꾸었다. 공식언어로 스페인어와 영어만 사용하였기 때문에 국제위상을 고려하여 급히 영어로 강의하기로 전략을 수정하였다. 최영집 전화장과 이상림 회장과 필자는 머리를 맞대고 PPT원고를 조정하여 강연식 영어원고로 수정하였다. 밤늦게까지 준비하였지만 부족한 부분은 최영집 전화장이 직접 밤을 세워 가며 손수 원고를 수정하며 자신의 원고로 다듬어나갔다.

29일 칸쿤의 강연



최영집 전화장 강연 모습

대한민국건축사의 위상에 걸 맞는 강연을 위해 노력하는 최 회장과 이 회장의 모습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였다. 서울을 떠날 때부터 필자는 내심 최 전화장의 칸쿤강연이 단순한 개인의 행



간꾼 UIA 회장단 모습



간꾼해변에서

사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행하였다. 29일 아침 소식을 하면서 이상림 회장과 필자는 또 한 번 놀라고 말았다. 최영집 전회장께서 밤을 새워가며 꼼꼼하게 작은 영어단어들로 원고를 수정해놓은 것을 보고서 철저하게 준비하는 열정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

아침을 먹고 일행은 몇 대의 차량에 나누어 타고 간꾼대학(Universidad La Salle)으로 이동하였다. 넓은 대지에 나지막한 건물이 평화로운 인상으로 다가왔다. 강당으로 향하는 넓은 입구에는 학생들이 부산하게 전시준비를 하고 있었다. 09시 30분 전시개막을 위해 일행은 야회홀로 나와 학생들의 전시작품을 관람하고 야회사진촬영을 끝내고 개회식을 하였다. 잠시 휴식을 끝낸 다음 11시부터 30분 간격으로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11강좌가 이어졌다. 전체적으로 '친환경디자인전력'이란 주제 하에 국제적인 인사들이 다양한 소주제로 심도 있는 강연이 펼쳐졌다. 야외에서 점심으로 멕시코식 샌드위치인 보끼딜료를 맛있게 먹고 나서 필자는 유에스비를 들고 강연담당자를 만났다. PPT화면을 확인하고 직접 최 전회장이 이동식 마우스를 움직이는 것까지 준비를 마쳤다.

조용한 침묵이 흘렀다. 말을 하지 않았지만 서울서부터 최대의 관심사향은 최 전회장의 간꾼포럼 강연이었다. 이상림 회장과 필자는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침묵하였지만 내심 한국건축사의 위상이 걸린 문제라는 것을 모를 리 없었다. 4명의 강연자와 의사 진행자가 단상에 자리잡았다. 최 전회장의 당당한 모습에서 오늘 강연결과를 보는듯했다. 플로어에서 이회장과 필자는 침묵하며 조용히 기다렸다. 오후 세 번째 강연자로 최회장이 지목되었다. 오후 3시 PPT화면에 'Neutral Carbon City Model' Young-jip Choi(FIKA)란 선명한 문구가 나타났다.

긴장을 한방에 날려버릴 정도로 최 전회장의 미성은 알파벳글자의 발음으로 부드럽게 파고들었다. 그리고 화면과 원고를 화려하게 넘나들며 요지를 당당하게 짚어나가고 있었다. 필자는 순간 이상림 회장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이회장의 부드러운 미소에 이미 모든 의미를 담고 있었다. 30분의 강연이 우아하게 진행되었다. 그리고 박수소리와 함께 마지막 마무리 스페인어 Gracias(감사합니다)가 강연장을 부드럽게 어루만졌다. 사진기를 내려놓고 나는 조용히 강연장을 빠져나왔다. 이상림 회장에게 카메라를 던져주고 충만한 즐거움으로 밖으로 나왔다. 대

한민국건축사협회 1세대 회장의 공식적인 국제행사가 이것으로 마감되었다고 필자는 조용히 가슴으로 외쳤다. 국제위원자격으로 강연하는 것과 협회 회장자격으로 강연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 그것도 국제포럼에서 영어로 당당하게 강연하고 질문을 받는 것은 대한민국건축사협회 회장으로서 아마 처음 있는 사건일 것이다.

필자는 차기 FIKA회장인 이상림 회장께 약간 목직한 말투로 다음 국제 강연자는 지금보다 더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은 물론이고 좀 더 국제적인 감각으로 발표해야 할 것이라고 웃으며 말했다. 말없이 웃고 있는 이 회장의 얼굴에서 대한민국건축사의 믿음과 희망을 발견하였다.

환영만찬을 마치고 늦게 호텔로 돌아오자마자 필자는 자유를 선언하였다. 두 분 회장은 아무도 필자의 마음을 방해하지 않고 그냥 웃었다. 전투에서 승리한 장군의 마음이 이럴까. 사실 전투는 최영집 전회장이 치렀지만 승리의 기쁨은 오히려 필자가 더 많이 느꼈다. 샤워를 마치고 곧바로 침대로 미끄러졌다. 그날 밤 최 전회장과 이 회장은 따로 한잔을 하셨다고 한다.

30일 B2B호텔

30일 강연은 이동하지 않고 우리가 묵고 있는 B2B호텔 꼭대기층 라운지에서 진행되었다. 차기 FIKA 회장인 이상림 회장의 숙연한 강연태도를 비롯기라도 하듯이 필자는 자유롭게 자리를 빠져나와 주변의 전망을 감상하며 진한 커피 향을 맡으며 여유를 즐기고 있었다. 뽀뽀한 오전 강의가 끝나고 오후 강의는 5시30분에 일찍 끝났다. 몸은 자리를 지키고 있었지만 마음은 나비처럼 상상의 스토리에 빠져있을 때 이상림 회장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주최 측에서 나누어주는 녹색티를 입고 간꾼시내 포럼 야외행사장(La Villa Del Cambio Climatico)으로 이동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다보니 정체가간이 너무 길어 필자는 대학생들 무리와 함께 계단으로 천천히 내려갔다. 최 전회장과 이 회장은 이미 차를 타고 떠나버렸다. 나는 일군의 학생들과 함께 담소를 나누며 야외행사장으로 향했다. 주최 측은 녹색티를 단체로 받쳐 입고 구호를 외치며 행사장을 돌았다. UIA Cox회장의 선창을 따



마야춤 장면

라 구호를 외치며 어린시절 학생처럼 즐겁게 따라다녔다. 행사장 실내는 너무 후텁지근하게 더웠다. 그래도 마음은 즐거웠다. 멕시코 대첩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생각만으로 가슴속이 다 시원하게 뚫렸다.

지루한 기다림 끝에 호텔에 돌아와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고 저녁만찬에 초대되었다. 이름하여 Maya Party란 만찬이 나를 유혹하고 있었다. 마야파티는 개인적으로 돈을 지불하게 되어 있었지만 우리일행을 항상 에스코트해주는 Luis가 야외 행진 시 지루한 기다림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보상하려는 듯 슬쩍 식권을 호주머니에 넣어주었다. 속으로 그렇게 기대하지 않고 호텔음식점에 들어섰다.

마야전통음식을 살짝 맛본 혀의 감동은 깊은 문화의 진동을 느끼기에 충분하였다. 마야의 음식과 우리전통음식의 차이가 그리 멀지 않다는 본능적인 느낌이 들었다. 단순한 요리가 오히려 깊은 맛을 전해주었다. 건조한 나뭇잎을 요리한 듯한 마지막 음식을 남겨두자 옆에 있던 이 회장이 먹어보라고 채근하였다. 생각보다 담백하고 깊은 향이 마지막 입속을 단정하게 마무리해주는 것 같았다. 마지막 밤의 피날레는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았다. 요란한 마야전통의상을 입은 무희들이 남녀로 나누어 식당테이블 사이를 파고들듯 요란하게 나타났다. 1m앞에서 그들의 숨소리까지 들을 수 있는 지점에서 그들의 동작을 살펴보았다. 모든 동작이 웅장스러운 마야전사들의 훈련동작을 춤으로 승화한 듯 박력이 전해졌으며 일사분란한 춤동작이 하나같이 전투적인 훈련장면처럼 절제된 육체의 힘을 뽐어내었다. 멕시코의 전통은 역시 스페인의 침략자가 아니라 마야의 원주민에서 기인한다는 것을 가슴가득 느낄 수 있었다. 땀방울이 송송 맺힌 무용수들의 이마를 바라보며 진심을 담아 진한 박수를 선물하였다. 그들의 불꽃처럼 진한 춤사위가 사라질 즈음 필자의 멕시코여행도 종지부를 찍고 있었다.

12월1일 멕시코를 떠나며 (Adios Mexico)

늦은 아침을 먹고 우리일행은 하나둘 짐을 싸고 로비로 모여들었다. 토론토를 경유하는 최영집 전회장의 출발시간이 1시라서 11시까지 공항으로 배웅하고서 오후 4시 40분에 뉴욕을 경유 서울로 돌아오는 이 회장과 필자는 마지막으로 간곤 호텔지역을 돌며 점심과 차를 마시며 간곤포럼의 의미를 생각하며 아쉬운 여유를 붙잡고 싶었다.

해외 여행자유화가 실현된 지 벌써 20년이 흘렀다. 가까이 일본과 중국을 섭렵하고 멀게는 태국과 홍콩, 필리핀, 싱가포르, 인도로 확장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해외여행은 아직까지도 유럽이라는 대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덕분에 우리는 모더니즘의 원조 격인 그리스, 로마에서 기인하는 유럽의 고전적인 문화유산을 많이 배우기는 하였지만 동시에 좁은 영어권 시야에 갇혀 지낸 것도 사실이다.

지금 우리 머릿속에 그려지는 세계지도를 떠올려보면 그동안 중남미는 먼 친척정도로 알기는 하지만 결코 가까이 만나본적이 없는 유산의 일부였는지 모른다. 중남미는 우리에게 지워진 아니 반쯤 가려진 석양을 묻고 있는 미지의 대륙으로 간주되었다. 마야와 잉카문명을 이야기하고, 아마존 열대림을 상상하고, 칠레와인을 마시고, 쿠바 음악을 듣고, 우리의 핸드폰과 자동차를 수출하면서도 정작 중남미대륙에 살고 있는 6억7천만 사람들의 얼굴과 문화와 경제와 건축문화를 바로보지 않았는지 모른다.

대한민국건축계가 UIA 총회를 유치하고 나아가 UIA 중심국가로 UIA 부회장 회장을 탄생시키는 나라로 발전하기 위해선 영어권 국가에만 공을 들이는 편협된 사고에서 벗어나야한다. 다양한 대륙과 다양한 인종과 문화와 국가에 우리의 건축문화를 소개하고 우정을 쌓아나가야 하는 시점에 도달하였다. 우리나라 건축계엔 미개척대륙인 중남미 6억7천만 인구의 중심국가인 멕시코건축사들과 우호를 증진시키는 계기를 마련한 멕시코건축사대회 및 UIA 기후변화 오픈포럼에 참가한 것은 대한건축사협회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기회임에 틀림없다.

멕시코건축사대회는 단순히 멕시코 국내 건축사만 참여하는 작은 모임이 아니었다. 중남미건축사연합회 사회장인 Jorge R Monti를 비롯한 다수의 중남미대표와 유럽건축사연합회 회장 Juhani Katainen, UIA전회장 Vassilis Sgoutas 등 UIA를 대표하는 인사들과 우호를 증진하는 멕시코건축사대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기회가 된 것은 차기 UIA유치를 위해 가장 시급한 일임에 틀림없다. 나아가 멕시코건축사협회가 주최하는 UIA 기후변화 오픈포럼에서 대한건축사협회 최영집 전회장이 포럼연사로 초청되어 영어로 강연을 진행하고 질문까지 주고받은 사실은 역사적인 사건이다.

출국하기 전에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실에서 서울대 라틴연구소 소장이자 서울대 스페인어과 교수인 김창민 교수와 이성훈 교수, 최 전회장과 필자가 만나 중남미국가와 향후 교류에 대하여 미팅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창민 교수는 라틴아메리카의 중심국가로 멕시코와 브라질을 꼽았다. 이번 멕시코방문이 일회성 잔치로 끝나지 않기 위해 지속적으로 중남미국가와 건축문화와 예술전반에 관한 교류를 정례화하기위한 고민을 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 그 주춧돌을 이번 멕시코방문에서 발견하였다고 믿는다. 건축문화가 건축이란 울타리를 벗어나 다른 문화와 공존하는 시대적인 소명과 마찬가지로 영어권위주의 건축교류가 다양한 대륙과 언어권과 소통을 해야만 하는 국제적인 소명을 대한건축사협회 및 한국건축계가 발견한 시금석이 바로 멕시코방문이라 생각해보았다. 간곤의 에메랄드빛 파도를 바라보며 미래 한국건축계의 희망을 건져 올린 간곤의 감동을 가슴에 안고 조용히 서울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